

2017년 제15기 글로벌인재양성과정 미국서부팀 해외정책연구 현장방문 결과보고

출 장 개 요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 9. 13(수) ~ 22(금) / 8박10일
- 장 소 : 미국서부(LA, 라스베이거스, 그랜드캐년, 샌프란시스코)/하와이
- 출 장 자 : 17명(인재개발원 최진명 외 16명)
- 소요예산 : 55,760천원

☐ 주요내용

- 미국서부지역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부산지역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연구
- 하와이 등 유명 관광지 방문으로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연구
- 향후 우리시가 지향하는 글로벌 명품 관광 도시로서의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

2017년 제15기 글로벌인재양성과정 미국서부팀 해외정책연구 현장방문 결과보고

미국의 세계 자연유산이자 관광자원인 그랜드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관리·운영방법 벤치마킹 및 하와이 등 유명 관광지 방문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연구 등 부산시가 지향하는 관광산업의 전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해외정책연구 미국서부 현장방문 결과보고임.

I.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 9. 13(수) ~ 22(금) / 8박10일
- 장 소 : 미국 서부(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샌프란시스코) / 하와이
- 출 장 자 : 총17명(인재개발원 최진명 외 16명)
 - ▷ 출장자 명단 별도붙임
- 소요예산 : 55,760천원
- 주요내용(연수목적)
 - 미국서부지역 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 벤치마킹을 통한 부산의 지속가능한 관광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 ☞ 그랜드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
 -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영화관련 시설 투어를 통한 부산이 지향하는 영화도시 부산의 추진전략과 발전방안 모색
 - ☞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 등
 - 다양한 관광자원화 벤치마킹을 통한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연구
 - ☞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피셔맨즈 워프, 하와이 벵룩시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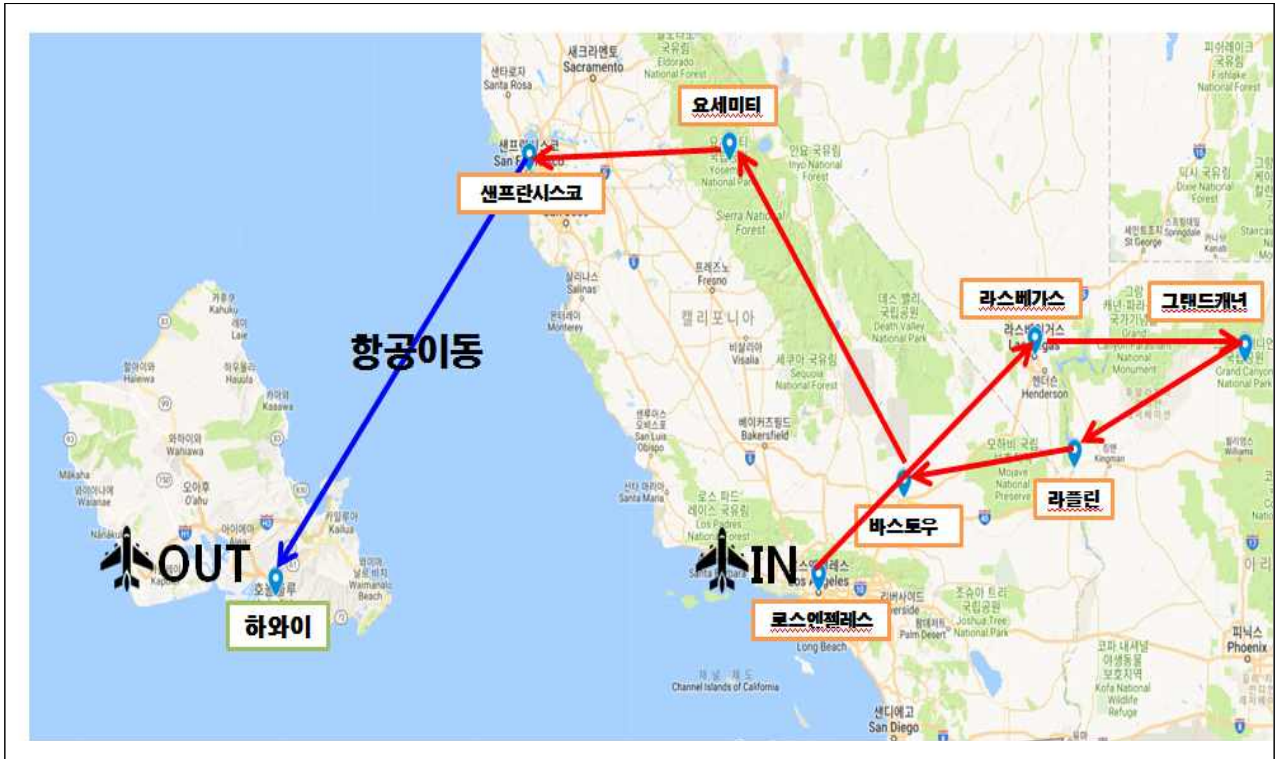
II. 방문일정

○ 날짜별 일정

일자	도시	교통편	연수일정	비고
제1일 (9.13,수)	부산/인천 인천/LA LA	KE1404 KE017 전용버스	· 김해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LA · LA 할리우드 스타의거리 · 익스포지션공원 탐방	
제2일 (9.14,목)	LA 라스베가스	전용버스	· LA시청 견학 ·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 · 라스베가스 야경투어	
제3일 (9.15,금)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라플린	전용버스	·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방문 및 공원 탐방 · 라플린 이동	
제4일 (9.16,토)	라플린 바스토우 프레즈노	전용버스	· 캘리포니아광촌 방문 · 베이커스필드(최대곡창지대)견학 · 프레즈노 이동	
제5일 (9.17,일)	프레즈노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전용버스	· 프레즈노→요세미티 · 요세미티국립공원 방문 · 샌프란시스코 이동	
제6일 (9.18,월)	샌프란시스코	전용버스	· 샌프란시스코 시청방문,피셔멘스 워프, 페리빌딩, 전기버스 탑승 · 금문교 관리사무소 방문, 베이크루즈 유람선 탑승 등	
제7일 (9.19,화)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HA011 전용버스	· 샌프란시스코→하와이 이동 ※ 하와이 주정부 청사 방문은 비행기 연착(7시간)으로 취소됨	
제8일 (9.20,수)	오아후	전용버스	· 알로하 스타디움 벼룩시장 방문 · 오아후 섬일주, 폴리네시아 민속촌 방문	
제9일 (9.21,목)	호놀룰루	KE054	· 호놀룰루공항→인천국제공항	
제10일 (9.22,금)	인천 인천/부산	KE1407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인천국제공항→김해공항	

○ 지역별 이동 동선

- 미 서부지역



- 하와이



Ⅲ. 방문 주요도시 개요

○ 미국

구 분	주요내용
수도	워싱턴 D.C
면적	9,630,000m ² (한반도의 약 42배)
인구	318,892천여명(세계 3위)
종교	기독교(56%), 카톨릭(28%), 유대교(2%)
언어	영어
민족	백인(83%), 흑인(12%), 인디언(5%), 동양계(5%)
기후	북동부는 대륙성기후, 남동부는 온대 및 아열대기후,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및 사막기후
정치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화제 체제- 50개주
경제	농업국가
시차	서부(LA)는 17시간, 동부(뉴욕)은 14시간, 동부(시카고)는 15시간, 중부(덴버) 16시간, 하와이는 19시간이 늦다

○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구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면적	1,302km ²	121.4km ²	28,311km ²
인구	388.4만	83.74만	140.4만
주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특징	엔터테인먼트, 교육 중심지	상업, 금융 중심지	관광, 농업 중심

IV. 일정별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스타의 거리와 차이니즈 극장

-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영화산업의 대명사 헐리우드와 세계최대의 영화촬영소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명성이 높으며, 현재 50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미서부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로서 가난한 이민자들의 꿈과 번영이 약속되는 희망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
- 헐리우드 스타의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중의 하나로 헐리우드 황금기의 명성을 알려주는 곳이다. 1927년에 극장왕 시드 그로맨(Sid Grauman)에 의해 세워진 맨스차이니즈 극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관으로 중국 사원풍의 건물에 탑, 사자, 용으로 장식되어 있다. 극장 앞에 있는 스타들의 손과 발의 프린팅과 자필글씨가 유명한데 마이클잭슨이나 마릴린 먼로 등 200명 가까운 명배우들의 자취가 남아있어 할리우드에서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고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이다.

❖시사점 : 헐리우드 스타의 거리는 그 거리의 규모나 화려함에서 이전의 헐리우드 황금기의 명성을 엿볼 수 있었으나, 스타의 핸드프린팅된 거리의 모습은 부산 남포동 BIFF광장과 별 차이가 없어보였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과거의 문화유산도 개발논리에 밀려 쉽게 버리거나 없애지 않고 명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우리 부산의 남포동 BIFF광장도 부산국제영화제 출발지답게 잘 보존하고, 인근의 국제시장·서구의 근대역사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세계적인 광장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유니버셜스튜디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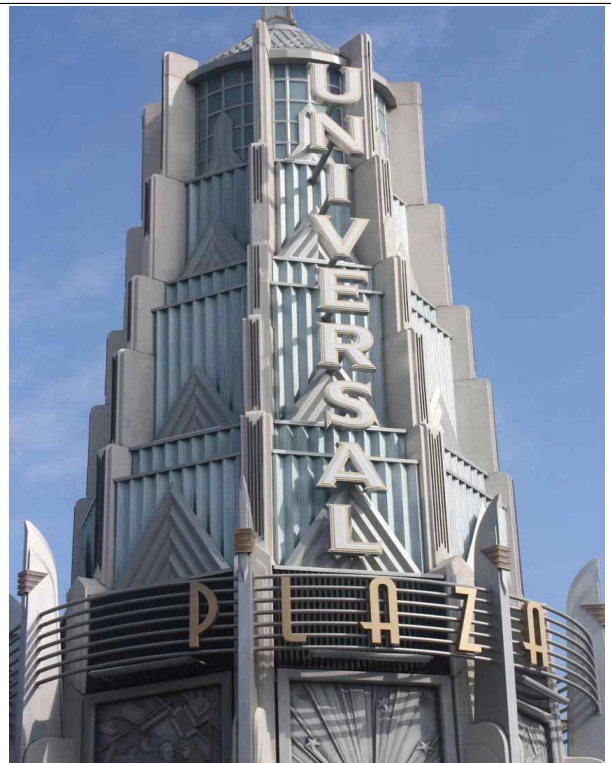
- 로스앤젤레스에서 반드시 둘러보아야할 명소 1순위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다. 우리는 가이드의 도움으로 스튜디오 현지 관계자를 만나 유니버셜스튜디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 1912년 영화제작사에 스튜디오 세트를 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60년대 이후 영화산업이 쇠퇴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최초의 영화스튜디오로 규모가 확장되었다고 한다. 유명 영화의 세트 및 특수촬영장면, 스텐트쇼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공원으로 스튜디오 투어, 스튜디오 센터, 엔터테인먼트 센터 등 3가지 코스로 구분된다.

❖ 시사점 : LA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샌퍼낸도 계곡의 넓은 부지 위에 마련되어 엄청난 규모와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여전히 세계 영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트램’이라는 안내버스를 타고 약 40분에 걸쳐 스튜디오 투어를 했는데 조스 등의 테마파크, 브로드웨이나 서부영화 촬영세트, 대홍수 촬영장치 등은 놀랍고 신기로운 볼거리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해리포터, 트랜스포머 등 실제 영화촬영 장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4D체험 관람은 짜릿하고 환상적이었다.

영화제작장소를 관광상품으로 연계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 기장군에 설립·추진하고 있는 영화스튜디오(2020년 준공예정) 현장과 부산 중구의 영화체험 박물관에 벤치마킹하여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겠다.

❖ 관련 사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



스튜디오 투어 체험

○ 라스베가스

-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 동남부 사막위에 세워진 거대한 위성 도시로서 24시간 365일 합법적인 카지노장 운영이 가능하여 인구 130만명에 연 관광객이 5천만명이상 찾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화려한 도시이며 세계인이 한번은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 1935년 후버댐의 완성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전기 공급에 의해 찬란한 네온사인으로 플래시 없는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세계 최대의 호텔 밀집 지역이다. 또한 전체 인구의 1/3이상이 호텔이나 카지노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이벤트, 컨벤션 산업의 미국최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시사점 : 자연이 만든 최고의 관광지가 캐년이라면, 인간이 만든 최고의 관광지는 라스베가스라고 한다. 라스베가스에서의 화려한 야경감상과 함께 다운타운가에서 펼쳐지는 프레몬트 거리의 전구 쇼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카지노가 밀집한 거리에 450m정도 아케이드 천정에 발광다이오드를 설치, 우리나라 LG의 기술로 완성된 자랑스러운 쇼였다.

호텔 내부 운하, 천정에는 하늘과 구름까지 그려놓은 베네시안 호텔 관광, 벨라지오 호텔 분수쇼, 각종 길거리 공연 등은 그 어떤 관광지 보다 훨씬 화려하고 독창적이었다.

라스베가스는 과거 카지노도박 위주의 관광에서 컨벤션, 가족 단위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광 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이 많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트래픽 컨트롤을 해서 일부러 병목현상이 생기도록 한다고도 한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어 이들의 끊임없는 변화의 가능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그랜드캐년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랜드캐년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자리잡고 있으며 4억년이 넘는 세월동안 콜로라도 강의 급류가 만들어낸 대협곡으로 446km에 걸쳐 펼쳐져 있고 해발고도가 2,133m에 이른다. 영국BBC방송국에서 죽기 전에 봐야 할 관광지1위에 선정되었으며,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학술적인 가치도 높은 곳으로서 1,500m에 이르는 협곡의 벽에는 시생대 이후 20억년 동안의 많은 지층이 그대로 드러나 가히 ‘지질학 교과서’라 할 수 있다.

❖ **시사점** :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원 현황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미국의 자원인 웅장하고 다양한 암석층을 체험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특별한 자연보호 의식에 새삼 경외감을 가지게 되며, 우리시도 산과 바다를 자연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특히 자연자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시설 장치설치도 자제하는 미국의 철저한 자연보호사상은 정말 위대하다고 본다. 또한, 이런 웅장한 자연유산을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으며 이러한 자연을 잘 가꾸고 이용하는 미국시민들의 모습도 여유롭고 성숙되어 보였다. 남성적 웅장함을 지닌 그랜드캐년은 그 크기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서 도보로는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없었다. 다행히 기상이 좋아 40여분간 경비행기 투어를 할 수 있었는데 캐년 상공에서 감상하는 협곡의 웅장함과 거대함,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이는 그 모습의 다양함은 매우 아름다웠다.

❖ 관련 사진



그랜드캐년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경비행기 투어 체험

○ 캘리코 은광촌 방문

- 모하비사막 한복판에 위치한 캘리코마을은 서부개척시대인 1881년을 기점으로 연간 1,200만불 규모의 은 발굴로 급속도로 인구가 늘면서 캘리포니아 최대규모의 도시 중 하나로 발전했다가 1896년경 갑작스런 은값의 하락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이내 유령의 마을(Ghost Town)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 그 후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로스앤젤레스 테마공원 “넛츠베리팜”을 세운 월트넛츠가 은광촌 당시 모습의 사진을 기초로 복원해서 1996년 정부에 기증하게 된 데에서 기인한다.

많은 중국인들이 광산에서 열악한 환경과 악조건으로 인해 사망하여 그들의 공동묘지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꼭 참배를 하는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캘리코 은광촌은 라스베가스에서 약 230km정도 떨어져 있어 LA에서 라스베가스를 오가는 길에 둘러볼 수 있는 관광명소 중 하나로, 미국서부 개척사를 볼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았고, 서부영화의 총잡이들을 재연해 놓고 있다.

❖시사점 : 과거 은광촌으로 제법 융성했던 도시를 재현하여 관광상품으로 구성해 놓아 짧은 역사의 미국인들에게는 민속촌 같은 의미를 가지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곳은 시설면이나 볼거리면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이 체험하거나 즐길 수 있는 볼거리도 없어보였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을 관광상품화한 아이디어는 좋으나, 우리시의 감천문화마을 등과 같은 곳이 훨씬 생동감 있고 볼거리도 많은 관광지가 아닌가 싶다. 우리시도 우리만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과거의 유적지를 잘 가꾸고 보존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재창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겠다.

○ 요세미티 국립공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부 시에라네바다산맥 서쪽 사면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해발고도 4,000m 정도의 산들이 늘어서 있고,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깊은 계곡과 큰 벼랑, 거대한 바위, 호수, 폭포, 맑은 시내, 세쿼이어의 숲 등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유명한 요세미티국립공원은 깎아지른 듯 솟아있는 암벽이 많아 암벽 등반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 1890년 미국 국립공원 지정, 1984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록된 이곳은 일찍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1,400여종의 식물, 포유류 74종, 조류 230여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 시사점 : 요세미티에 도착한 날 날씨가 너무 좋아 봄에만 볼 수 있다는 폭포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웅장한 바위산에서 내려오는 폭포는 장관이었으며, 쪽쪽 뻗은 세쿼이어 삼림들도 정말 멋졌다.

미국인들의 자연보호는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공원관계자에 따르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죽어도 스스로 살아나도록 방치하고, 자연발생 화재도 진화하지 않고 그대로 둘 뿐만 아니라 위험한 절벽에도 자연그대로의 보존을 위해 일부러 헨스를 설치하지 않으며, 그 대신 안전은 본인 스스로 지킬 것을 당연시한다고 한다.

특히, 국립공원에서는 쓰레기투기,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나무 꺾기 등 자연훼손 모든 행위는 벌금 100\$이상을 부과하는 등 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연보호 의식인 것 같다.

○ 샌프란시스코 문화 탐방

-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주 제4의 대도시로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민지 타운이 생겨날 정도로 이민에 관대한 도시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 다양한 문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여 있다. 언덕이 많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다운 해변과 40여개의 언덕마다 빼곡히 들어선 예쁜 집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거대한 금문교는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현수교로 설치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크루즈를 타고 해무 때문에 자세히는 볼 수 없었지만 금문교, 다운타운의 모습, 예전의 악명 높았던 교도소인 알카트레즈 감옥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소살리토와 같은 이름을 가진 소살리토는 갤러리와 쇼핑 타운이 즐비하여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시사점 : 우리시와 도시의 지형 여건이 유사한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는 여러가지 면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자가용을 외곽에 주차하고 버스,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특히 전기케이블을 이용한 전기버스 등이 시내 도로에 잘 조성되어 있어 공기오염 저감 등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노면전차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1906년 대지진으로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초토화된 적이 있으며, 1989년에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바 있어 최근에 지진을 경험한 부산시에서는 그들의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시 청사. 샌프란시스코의 행정 중심구역인 시빅 센터(Civic Center)내에 있다. 1906년에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도시의 많은 건물들이 파괴될 때 옛 시 청사도 파괴돼 지금의 새 청사가 세워졌다.

총 면적은 4만 6,000㎡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본 딴 94m 높이의 돔 지붕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사점 : 시청 직원의 안내로 시 청사를 둘러 보았다. 1906년 지진화재로 손실 되었을 때 재건축시에도 다시 원래의 기둥, 대리석 재료를 이용해서 지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시청 건물에서 혼인선서를 하고 결혼식을 검소하게 올린다고 하니 너무 인상적이었다. 엄숙한 공공기관이 아닌 친근한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시티홀 투어, 역사적인 건축물을 일반인 · 관광객과 공유하는 그들의 여유로움이 부러웠다.

❖ 관련 사진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

○ 금문교 관리사무소 방문

-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골든게이트 해협을 가로질러 샌프란시스코와 북쪽 맞은편의 마린카운티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주홍빛의 다리다. 금문, 즉 골든게이트(Golden Gate)라는 명칭은 골드러시 시대에 샌프란시스코 만을 부르던 이름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 중 하나인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만의 입구에 걸쳐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빠져 나가는 유일한 길로, 그 유명한 미국 고속도로 '루트 101'의 일부이기도 하다.
- '실현 불가능한 꿈' 이라 불리던 다리의 건설이 실현된 것은 설계자인 조셉 B.스트라우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1921년에 처음으로 계획안을 내놓았으나 이 계획안은 거절당했고 그 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쳐 설계를 수정했으며 계획에 반대하는 보수파와 페리선 사업자, 공학 전문가들을 설득했다.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1931년에 3천 5백만 달러의 채권이 승인되어 마침내 1933년에 착공하여 1937년 5월에 개통하였다. 많은 이들이 복잡한 지형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했지만 건설 기간 4년 만에 다리가 완성된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금문교가 공식적으로 개통된 바로 다음 해에 사망했으며, 현재 다리 근처에는 건설 초기에 그가 맡았던 중요한 역할을 기리기 위한 그의 동상이 서 있다.
- 주 케이블 사이의 간격은 1,280m로, 227m 높이로 솟아 있는 두 개의 우아한 탑이 케이블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 탑들은 금문교가 완공되었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 탑이었다. 금문교의 건설은 1996년 미국토목학회(ASCE)가 선정한 현대 토목건축물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다리의 총 길이는 약 2,800m이며, 걸어서 건널 경우 40~50분 정도 소요된다. 도로면은 수면에서 66m 높이에 있으며 수심이

깊어 대형 배도 통과할 수 있다.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은 직경이 약 90cm나 되는데 2만 7,572개의 가는 케이블을 꼬아서 만든 것으로 포트 포인트에 그 단면이 전시되어 있다.

- 금문교를 감상하기 좋은 위치는 시간에 따라 다르다. 오전에는 다리 아래쪽의 포트 포인트가 좋고 특히 포트 포인트 동쪽의 해안가 도로에서는 다리 전체의 모습이 잘 보인다. 오후에는 마린카운티 쪽의 조망대인 비스타 포인트에 오르면 샌프란시스코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으며 저녁에 서쪽의 베이커스 비치에서는 아름다운 석양이 보인다.
- 미학적인 면에서 금문교는 비길 데 없을 정도인데, 특히 오렌지빛 주홍색이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 준다. 다리의 색채를 제안한 것은 자문 건축가인 어빙 모로우로, 이 주홍색은 주변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안개가 낀 날에도 선박에서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이 중의 효과가 있다. 밤이 되면 금문교는 투광 조명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이 빛이 샌프란시스코 만의 물에 반사되어 마술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금문교는 완공된 이후 미국의 힘과 진보를 상징하는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전 세계 현수교 설계의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가장 자주 사진 촬영되는 다리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도 가장 웅장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 **시사점** :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금문교 위를 40여분간 도보로 탐방한 것이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시도 금문교처럼 일부 구간 안전 철조망을 설치하여 광안대교를 개방, 걷기와 자전거 길을 만든다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다.

❖ 관련 사진



금문교 관리사무소 방문



금문교 도보 체험

○ 하와이 현황

- 영토 : 하와이제도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니하우 · 카우아이 · 오아후 · 몰로카이 · 라나이 · 마우이 · 카호올라웨 · 하와이 등 8개 섬과 100개가 넘는 작은 섬들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완만한 호를 그리면서 600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최대의 섬은 하와이섬이며 주민의 대부분은 오아후섬에 살고 있다.
- 날씨·식생 : 하와이제도는 산이 많고, 또 북동무역풍을 받기 때문에 바람받이 북동쪽 사면은 강수량이 대단히 많아 다습하기 때문에 열대성 우림을 이루고 있으며 바람의 그늘이 되는 남서쪽 사면은 강수량이 적은 사바나 기후를 이루어 건조성의 식물이 자란다. 더욱이 산이 높은 하와이섬의 남서사면에는 넓은 건조 지역이 펼쳐져 미국 서부에서와 같은 대규모 방목지가 펼쳐진다.
- 역사 : 폴리네시아계 민족이 하와이에 이주한 것은 5세기경이며 그 뒤 오랫동안 부족 간의 싸움이 있은 후 1782년에 카메하메하 1세(1739~89)가 섬 전체의 통일에 성공한 후 1893년까지 왕조가 지속되었다. 그 후 미국인을 주로 한 외국인 거류자도 점차 늘고, 19세기 후반에 사탕수수 · 파인애플 재배에 성공하여 제당업이 번창하자 아시아인을 포함한 외국이민이 증가 하였다. 그 후 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합병운동이 지속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주(州) 승격운동이 성해지면서 1959년 8월 21일에 알래스카에 이어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다.

○ 와이키키 해변

- 샌프란시스코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하와이안 비행기의 결함으로 7시간이나 연착돼 숙소인 와이키키에 도착하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라 꿈에 그리던 하와이 자유 체험 시간이 물거품이 돼 버렸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와이키키 해변을 찾았는데 해운대보다는 규모는 작았지만 바닷물도 깨끗했고 야자수 나무 등 이국적인 풍경이 아름다웠다.

-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특히 해질 무렵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노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마지막 날 저녁 서둘러 해변으로 가니 해가 지는 장면을 보기위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평선 아래로 해가 지고 노을이 구름 속에 투영돼 정말 장관이었다.
- 해변을 따라 크고 작은 호텔들이 들어서 있어서 해변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호텔에서 타월 한 장만 들고 바닷가로 나가면 손쉽게 와이키키 해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주변에 'ABC'라는 이름의 편의점이나 주점들, 그리고 백화점을 비롯한 쇼핑센터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바닷가를 가지 않는 시간에는 쇼핑이나 유흥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갖추어 놓았다. 한마디로 와이키키해변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및 그 종사자들이 조화를 이룬 최고의 해수욕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시사점 :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갈 수 없도록 바다 한가운데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모습이 특이해 보였다. 그리고 와이키키해변에서는 절대로 음주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음주를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면 바로 철창행이라고 하니 우리 시의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볼 수 있는 한 밤의 무법천지 같은 무질서가 없는 이유를 알 것 같다.

○ 폴리네시아 민속촌 방문

- 하와이에 왔다면 폴리네시아 민속촌을 방문하는 것은 필수라고 한다. 이 민속촌은 폴리네시아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유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라고 한다. 하와이, 피지, 사모아, 타히티, 통가 등 각 지역 출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 태평양 문화의 산 교육장이며, 각 지역의 학생들이 외지로 나와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는 것이 값진 공헌을 하는 셈이라고 한다.

- 민속촌은 그 광대한 면적과 다양한 볼거리 때문에 자세히 보려면 1박 2일은 잡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때마침 나와준 한국인 유학생들의 안내로 본격적인 민속촌 탐방을 시작하였다. 우선 폴리네시아 민속촌을 비롯한 하와이제도를 소개하는 4D 영상을 30분가량 감상하였는데 영상도 우수하고 4D 효과도 제법 실감이 나서 그런지 보고 나서도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 민속촌 곳곳에는 각 부족별로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테마형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매우 이채로웠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사모아부족의 공연을 감상하였다. 공연의 내용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옛날 방식으로 불 피우기’, ‘야자수를 타고 올라가 열매 따기’, ‘코코넛 열매를 쪼개서 요리하기’ 등 과거 그들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연기자들의 연기가 매우 뛰어나고 익살맞아서 공연을 보는 내내 관객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 이어서 민속촌을 따라 흐르는 개천 위로 배들이 지나가면서 선상에서 각 부족별로 공연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개천의 양쪽 둔덕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박수도 치면서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남녀 무희들이 자기 부족의 전통춤 추는 것이 공연의 주된 내용이었으나, 색다른 모습이 나름대로 흥미진진했다.

❖ 시사점 : 흔히 민속촌이라고 하면 단순히 과거 유물들을 전시하는 따분한 공간이라고들 많이 생각하겠지만 이곳 폴리네시아 민속촌은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생동감으로 인하여 전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매우 훌륭한 관광상품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관광지도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보여야만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관련 사진



폴리네시아 민속촌 방문

V. 벤치마킹 활용방안

① 체험 중심의 영화산업 육성

◆ 체험 중심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어

- 단순한 헐리우드 영화의 세트장 구경이 아닌 실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재미를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형 투어

◆ 보존되고 있는 헐리우드 스타의 거리

- 헐리우드 유명 스타들의 핸드프린팅, 특색 있는 극장의 보존으로 영화의 본고장 명성을 유지하고 있음

- 부산의 다양한 영화관련 체험공간을 활용하여 단순세트장 관광 상품이 아닌 실제 영화 속 등장인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모색 필요 ▷ 남포동 「BIFF광장」, 해운대구 「영화의 거리」, 중구 「영화체험박물관」('17년), 기장군 대규모 영화스튜디오('20년 예정) 등
- 한국영화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발지, 각종 의미있는 영화촬영 장소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글로벌한 영화 중심지로서의 도약이 필요함

② 자연그대로의 보존을 통한 공원 관리

◆ 요세미티, 그랜드캐년 등 미서부 국립공원

- 멋진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시설 장치도 설치를 자제하는 미국의 철저한 자연보호사상과 미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인상적임

- 부산의 아름다운 산 중에서 휴식년제를 활용, 동식물들이 살만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면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의식 함양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동물을 포획하거나 먹이도 주지 않고 자연그대를 누리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사람위주, 관광객 위주의 편의시설 제공이 아닌 자연을 우선시하고, 교통·먹거리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함

3 끊임없는 변화를 통한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

◆ 사막을 최고의 복합리조트로 바꾼 라스베가스

- 사막위에 세워진 기대한 위성도시로 차별화된 호텔 시설, 기상 천외의 다양한 쇼 등을 활용하여
- 과거 카지노도박 위주의 관광에서 컨벤션, 가족단위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 산업으로의 끊임없는 변화를 하고 있음

○ 우리시에도 북항에 세계적인 복합리조트가 건설된다면

서울·제주 등 다른 관광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부산의 관광·마이스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4 창조적 마인드로 관광명소·콘텐츠 개발

◆ 해양레포츠의 천국 하와이

- 서핑, 카누, 카약 등 해양스포츠 활성화로 관광객들이 단순히 보는데 그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 해변에서의 음주를 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서 밤에도 아늑하고 즐거운 해변을 즐길 수 있음

○ 사철 따듯한 날씨 속에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하와이의 입지조건을 우리 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와이는 정말 해양레포츠의 천국이라고 말하고 싶다. 청소년때부터 벌써 서핑을 즐길 정도로 바다와 친숙한 그들의 문화와 지천으로 널려 있는 해수욕장 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우리가 따라잡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선 와이키키해변에 와서 느낀 점이지만 해변에서의 음주와 쓰레기 투기 등의 악습은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해변에서의 음주를 법규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서 밤에도 아늑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해변을 즐길 수 있었다.
-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서핑, 카누, 카약, 스노클링,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갖가지 해양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단순히 보는데 그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단연 인기를 끌고 있었다.
- 폴리네시아 민속촌에서 느낀 점이지만 단순히 볼거리를 전시 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들 앞에서 공연도 펼치고 관광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우리 시 만의 생동감 있는 해양과 관련된 쇼를 보여줄 수 있는 상설 전시장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 '부산' 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관광상품으로 재탄생

◆ 샌프란시스코 시청사의 특색 있는 활용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건물 중 하나로, 일반인을 위한 결혼식 장소 제공, 시청투어프로그램 운영 등

◆ 샌프란시스코 도시 자체가 독특한 매력의 관광지

- 샌프란시스코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독특한 매력의 도시

- 샌프란시스코처럼 그 도시가 가지는 독특한 매력만으로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임
 -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 느껴지는 특유의 자유스러움, 아담하게 꾸며진 주택, 샌프란시스코를 주제로 한 음악 등이 어우러짐
- 우리 시도 이에 못잖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이야기꺼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를 전 세계인이 누구나 한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독특한 매력을 재창조하였으면 함

공무국외여행 출장자 명단

연 번	소 속	직	성 명	비 고
1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사서6급	최진명	인솔책임
2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행정6급	조돈준	
3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행정6급	이은경	
4	부산광역시 비전추진단	행정6급	임세정	
5	남구 재무과	행정6급	곽민제	
6	사상구 문화교육홍보과	행정6급	장훈정	
7	금정구 총무과	행정6급	남윤미	
8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시설6급	이양원	
9	부산시설공단	팀장(행정3급)	최은석	
10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행정6급	주재문	
11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	행정6급	이선희	
12	중구 창조건축과	행정6급	김희경	
13	강서구 재무과	행정6급	송 란	
14	북구 덕천3동	행정6급	이미숙	
15	동구 자원순환과	공업6급	오영균	
16	사상구 자치행정과	전산6급	김미란	
17	해운대구 늘푸른과	녹지6급	조봉래	